

다주택 단체장 낙인에 “상속받은 시골창고”

이용섭 광주시장 2주택 관련 심경

“별채, 공시지가 2050만원 창고 재산증식 목적이면 비난받아 마땅”

이용섭 광주시장이 ‘다주택 광역단체장’이라는 낙인에 불편한 심경을 비쳤다.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상속받은 시골의 창고까지 싸잡아 다주택 보유로 몰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섭 시장 2주택 보유 기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요즘 고위 공직자의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며 “재산증식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뉴스시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은 ‘이용섭 광주시장 2주택 보유’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빨리 팔라고 조언하는 분도 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이라고 적극적인으로 해명했다.

이 시장은 “40여 년 공직생활을 거쳐 가진 집은 1993년 구입해 30여 년 거주, 보유해 온 서울 가락동 집 한 채뿐이다(지난해 말 기준 공시지가 6억 7500만원)”며 “어머니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시골 고향집을 상속받았고, 이 곳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골집은) 공부상은 지금도 주택이지만 30여 년 비어있는 공가로, 집이 너무 낡아 일부가 허물어져 본체는 수년 전에 철거했고 별채만 16평 정도 되는데 가족들 추억이 서려있어 그대로 두었다”며 “지금은 집터를 밟으로 사용하는 분이 연장(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고수준이다. 공시지가는 2050만원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면 할 말이 없다. 오늘따라

평생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고 끝을 맺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매각을 지시하면서 이 시장까지 언급되자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2050만원 상당 주택까지 포함해 ‘2주택 보유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 시장의 항변은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시장은 서울과 함평 외에 현재 거주하는 광주 서구 매월동 아파트의 전세권(107.73㎡·3억2000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 집을 보유한 채 시장으로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이 적은 광주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는 데는 굶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동네방네

부산시

AR e스포츠 시장 출사표

부산시는 산하기관인 정보산업진흥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우드커뮤니케이션즈가 공동으로 새로운 e스포츠 중계 서비스인 ‘실시간AR(증강현실)e스포츠 중계 기술’을 개발한다고 9일 밝혔다.

‘실시간 AR e스포츠 중계’는 ‘선수 AR 중계’와 ‘인게임 AR 중계’를 기존 e스포츠 중계에 접목한 방식이다.

‘실시간 선수 AR 중계’는 선수가 경기장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현장 관객과 시청자들은 선수가 경기석에서 경기를 하는 형태의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평택해수청

해상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T, LGU+, SKT의 수도권지사 각 대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평택해수청은 지난해 12월 입파도 등대에 태양광발전 전원시설을 증설해 이동통신 3사에게 중계기 운영에 필요한 전원 및 시설사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이동통신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해수청은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해상이용자들의 안전과 해양환경보전에 활용코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평택(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경주를 K웹툰 중심지로’… 경북도, 웹툰콘텐츠 조성 박차

이현세 작가, 캠퍼스 명예총장 위촉 작가·관련 기업 입주… 내년 운영 누구나 참여 가능한 웹툰강좌 개설

경북도와 경주시,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경북웹툰콘텐츠 조성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운영 위원회를 지난 3일 발족한 데 이어 앞으로 이현세 작가를 캠퍼스 명예총장으로 위촉하는 등 경주를 K웹툰의 중심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구 황남초등학교에 약 800㎡(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는 웹툰캠퍼스는 연발 완공을 목표로 현재 내진 및 외벽 설계와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추진 중이다.



경주시 웹툰 캠퍼스

이 곳은 15명 정도의 작가와 관련기업 입주공간과 교육실, 전시체험장 등을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웹툰강좌도 개설한다.

먼저 9일부터 3주간 웹툰기초교육(스토리텔링과정)이 경주시청 대회의

실에서 진행된다.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웹툰스토리 창작 실습과 개별 피드백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과정이다. 특히 이미 드라마로도 제작돼 방영됐던 네이버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해출링 작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되는 ‘스쿨툰

과정’은 대령원 인근 한옥 도서관 ‘문정헌’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웹툰 기초이론과 클립스튜디오를 활용한 웹툰창작 수업을 3주간 진행한다.

그 외에도 1대1 멘토링과 체험 프로그램 등 웹툰에 관심 있는 도민이 웹툰 창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웹툰 관련 상세 교육 프로그램은 경북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 과정 무료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 비대면 콘텐츠 산업 중의 하나인 웹툰산업의 인재를 발굴 양성해 경북 웹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미국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 이미지

/전라남도청

美 아마존에 ‘전남 식품브랜드관’ 개장

지자체 최초 농수산물 전문관 친환경 웰빙 브랜드관 집중 홍보

전라남도는 최근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미국 ‘아마존’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역농수산물 전문으로 판매할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장했다.

‘전라남도 브랜드관’은 미국 아마존 내 별도의 누리집으로 운영된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맛의 중심이라는 ‘The Kitchen of Korea’를 캐치프레이즈로 ‘친환경 웰빙’ 브랜드관임을 집중 홍보해 입점제품들이 다 함께 매출 확

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특허청에 ‘Jeollanamdo’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지난 6월 최종 상표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브랜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미국 내 아마존 판매대행 전문기업인 Kreassive LLC(대표 Sean Chang)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운영사는 수출기업의 미국 내 현지 법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 햇마늘 가격 안정세… 수급대책 영향

계획보다 수매물량 확대 등 적극 대응

전라남도가 추진한 마늘 수급대책의 영향으로 최근 햇마늘 가격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시세가 형성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1일 전국 마늘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창녕 산지공판장 경매에서 대서종 상품 1kg 평균 경락가가 3025원을 기록하는 등 현재 마늘 가격은 3000원 내외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500원대는 물론 당초 예상한 2500원 선을 뛰어넘은 것으로 전라남도는 당분간 이 가격대에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마늘 생육상황과 소비 추세 등을 감안, 수확기 가격이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정부에 선제적인 수급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마

늘 가격안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발 빠른 대응으로 전라남도는 예년에 없었던 정부의 마늘 수급안정대책 조기 추진을 비롯 추가 시장격리, 수매 확대, 별마늘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냈으며, 마늘 가격의 회복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자체 확보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비 등 총 102억 원을 적기 집행해 세 차례에 걸쳐 338ha, 5000여 톤을 신속히 시장격리 했다. 또한 정부와 농협, 주산지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수매물량을 확대하는 등 마늘 가격안정에 주력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겨울매추 등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체육인교육센터 부지 현장점검

/장흥군

장흥군

스포츠 등 핵심동력 육성

장흥군이 올해 스포츠, 의향, 안전,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4(four)메카 장흥’을 만들겠다고 9일 밝혔다.

맑은 물, 푸른 숲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자원에 4가지 핵심 동력을 장착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4메카 육성의 첫 번째 과제로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스포츠메카를 추진하게 된 데에는 장흥군의 온화한 기후와, 산·들·강·바다를 두루 갖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지역적 장점을 활용해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와 동계 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김일환 기자 1234kim@